

알천에 뜬 배; 역사 도시와 노아의 방주

A Ship on the 'Al-Chun'; Historical City and Noah's 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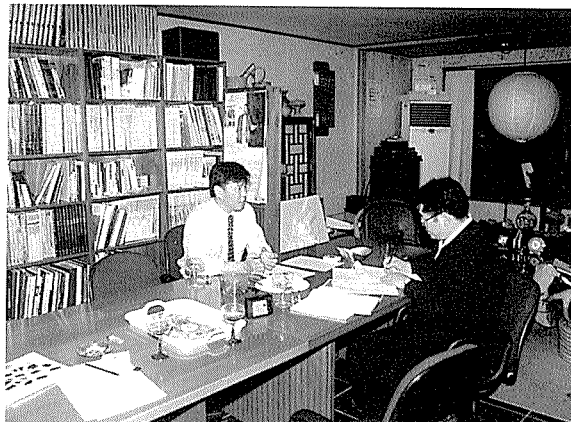
건축사/손명문(건축사사무소 건·환)

대담자/성인수(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ung In-Soo & Son Myung-Moon

일시/98. 10. 19(월) 17:00~19:00

장소/건·환 사옥 3층 소장실



대담광경(왼쪽: 손명문, 오른쪽: 성인수)

성인수 _____ 올 봄에 작고하신 선친(손재수 건축사사무소)과 손명문(건·환)소장님은 경주에서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건축사 1세대라 부를 만한 선친의 경주에서의 활동을 평가해 보신다면?

손명문 _____ 저에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셨습니다. 부친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해방 후 귀국하여 경주공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6·25가 나자 경찰계에 투신하여 국가에 봉사했고, 전쟁 후에는 국가 건설 및 재건에 부흥코자 건축계로 복귀하셨습니다. 초창기 건축대서사에서 건축사로 건축사 제도가 마련되는 중에 자격을 취득하여 67년 경주에서 건축사 1호로 개업하고 설계를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무소와 집이 붙어 있어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면 부친의 작업실을 거쳐야 했는데 새벽 1, 2시에도 열심히 건축을 하던 모습을 보며, "건축이란 열심히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뇌리에 남아, 제가 건축을 하게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식 교육 탓인지는 몰라도 당신께서는 철저한 시간 관념과 매사를 능동적,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여 주셨고 그 긍정적인 태도는 지방도시에서 일해 가는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긍정적 태도와 성실성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노령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경주 구 맨해튼 호텔, 대영빌딩, 검찰청장 관사나, 예식장 등 경주 시가지에 많은 작품을 남기셨고, 저에게 작품보다는 생활태도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셨고 현실적 여건으로 작품을 할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격려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설계사무소 초기에는 누구나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생활이 어려울 때는 생활비를,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책값을 보내 주는 등 경제적 보조나 건축적 격려를 통하여 제게 정신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건축사들의 사회적 활동, 건축사들의 지위, 품위 향상에 노력하셨고, 초대 경주건축사회 회장, 경상북도 건축사회 회장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셨습니다. 건축사회 행사시에 만세 삼창을 외치는 모습이나 노래를 하던 모

습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인수 _____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진로를 건축으로 선택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격려하실 예정입니까?

손명문 _____ 본인이 원한다면 그대로 존중할 생각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같이 여행하면서 건축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는데 그것이 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1인 지금까지 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혹시 "고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중년 선배를 경주 남산 등산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인생은 고난"이라고 한 말에 공감되면서, 내 아들도 건축을 하게 된다면... 하지만 보람있는 고생(?)이 될터, 또 건축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신의 축복이기도 하니까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인수 _____ 공부와 실무를 배우러 서울을 다녀오신 지도 꽤 되셨고, 경주에서는 건축 외에 여러 일에 관여하는 듯한데, 요즘은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일상적인 생활인으로서의 소장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문 _____ 지역 내에서 선배로서 실무자로서 사회적인 봉사도 생각하고 주 14시간 경주지역 대학인 동국대학교, 경주대학교 등에서 건축 및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자연환경요소뿐만 아니라 문화적 토양을 느끼고 깨닫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기도 하고 문헌조사, 답사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의 작업이 10년, 20년 후의 건축을 위한 것이니 건강을 위한 노력도 합니다. 건축은 5, 60대부터라고 생각하며 건강을 위하여 중학교 선수 수준인 탁구를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즐겨하는데 시험 중에 작은 탁구대를 바라보면 파란 바다처럼 넓게 느껴지고 공이 오고가는 사이의 무념의 상태를 즐깁니다. 골프는 좋은 운동이지만 시간도 많이 드는 데다 걷어가는 동안에 업무로 인한 잡념이 생겨 그만 둔 지

가 한 6년 되었습니다.

성인수 _____ 근래 경주에서도 IMF 상황 등으로 건축적 상황이 많이 바뀌어 일의 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손명문 _____ IMF는 전국적인 상황이므로 경주 등 소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건축이 경제성과 긴밀한 관계를 지녀야 합니다. 건축의 단순성이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단순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적은 공사비로 지을 수 있는 건축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면이 있다면 기수요는 없어지고 필요한 건축주들이 집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적 질은 다소 높아지고 건축주를 상대하는 것이 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그동안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던 집장사들은 사라져서 전반적 일감은 줄었지만 어느 정도 문화적 수준이 있는 실수요자들과의 만남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성인수 _____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동안 추구하던 건축적 주제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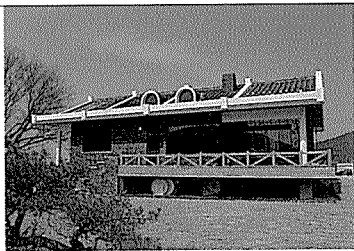
손명문 _____ 경주에 내려와서 비교적 젊은 나이인 39세에 겁도 없이(?) 건축 개인전을 열었는데 경주에 대한 건축적 주제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과정 속에서 건축적 순수함, 의욕, 열정 등은 그대로 지녀야 자신의 건축적 성숙도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며 자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은 건축 작업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선친처럼 저에게 영향을 준 분들은 대학시절의 조창한 선생님, 작업기의 정시춘 선생님입니다. 조 선생님은 현상설계 참가시에 “최고를 향한 완전성”을 끝없이 추구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품을 포기하기까지 하던 선생님의 사례를 기억하게 되고, 자기자신에게 완벽함을 끝까지 요구하던 태도에 감명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건축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건

축은 조건을 디자인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통하여 완벽한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실성, 건축적 끈기”를 가르쳐 주던, 이제는 학교를 떠나 다시 실무를 하는 정시춘 선생님 등 좋은 스승과의 만남을 제 건축에서 지적 자극이었으며 좋은 기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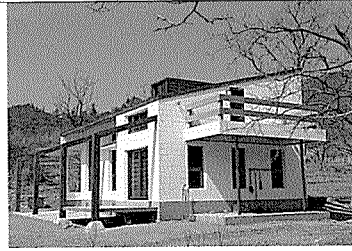
성인수 _____ 그동안 인천 주안 영광교회, 과천 과천교회(1986년), 감포 제일교회(1987년), 황성동 성당(1991년) 등의 교회를 설계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벽돌이 주를 이루었고, 종탑이 부각된 이들 교회보다는 서라벌교회는 그 건축적 어법, 형태와 의미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교회건축에 대하여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문 _____ 인천 주안 영광교회, 과천 과천교회는 서울 정주건축에 몸담고 있을 때의 프로젝트로 디자인을 담당한 것인데 당시 계획 프로젝트와 교회를 많이 작업했습니다. 그 당시 디자인 개념들이 경주의 황성동 성당까지 이어졌습니다. 종교건축은 다른 장르와는 달리 오랜 세월동안 변하지 않고 존재해야하는 시간성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종교건축물들의 사례는 충분히 이것을 증명합니다. 외장 재료로 벽돌을 선호하는데 벽돌은 오래 변하지 않는 시간성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보다 지속성을 지니므로 벽돌을 채택하여 교회가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성을 표현했습니다. 벽돌 자체는 환경친화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라벌 교회에서는 파벽돌을 조금 사용하고, 대부분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여 형태적 재미를 유추한 것은 건축이 종교적 신비성보다 “말씀” 중심의 생활신앙을 표현한 일상적인 건물로써의 교회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보다 인간중심의 “하느님과 만나는 인간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당은 의식과 신비성을 중요히 생각한다면 기독교회에서는 상징성과 함께 공간적으로는 생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적 기법도 일상적 편안함과 이용자에게 쉬운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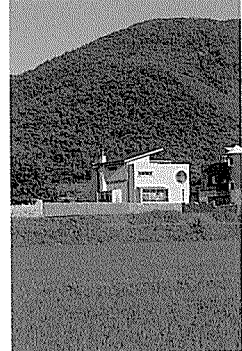
성인수 _____ 교회에서 형태적으로 상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유적으로 “생활 속의 표현어”라



천근동 주말주택



최화백 아뜰리에



하셨는데 장소성, 면류관, 십자가와 '배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탑이 돛이나 마스트로 분화되고, 강가에 표현한 '노아의 방주'가 오래된 역사도시 경주라는 도시 안에서 지니는, 또는 의도된 현대적 의미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손명문 "생활 속의 표현어"라 한 것처럼 교회건축은 신앙생활의 일부로써 시민들에게 친화력있게 다가간다고 생각했는데 경주의 지역적 특징으로 역사적 측면, 자연적 측면, 생활의 측면 등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지는 사회적 생활성이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시에서 허가한 강변 포장마차촌과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 그리고 슬러화된 도시의 상황으로부터 인식된 250평의 적은 부지로부터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역을 순화할 건축의 힘이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의 대지였다면 건축적 출발과 결과로써의 형태나 공간처럼 사뭇 달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 단위로는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제일 큰 도시인 경주에서 만약 대지가 경주 교외에 위치했다면 자연적인 경관과 어울리는 문화적인 그 무엇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지에서 우리는 소리와 합일이 되도록 맞추기 위하여 노력을 했고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시대 알천으로부터 지금의 북천, 현재는 물이 적기는 하지만 앞으로 강에 물이 가득 차서 이 북천의 물과 교회가 어우러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강 건너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중요시했고 제 사옥과 서라벌교회가 앞으로 형성될 경주의 수변경관을 위하여 작은 단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성인수 소장님의 사옥은 북천 변에서 랜드마크로 경주시내 택시 기사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데, 이 서라벌교회는 살고 계신 사옥 겸 주택에서 건너다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 같은 도로에 면해 있습니다. 평소 대지나 주위를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설계를 의뢰 받게 된 특별한 과정이 흥미 있을 듯 합니다.

손명문 사무실에 위치한 제 방에서는 북쪽으로 늘 북천(알천)과 황성공원이 보입니다. 서라벌교회 대

지도 동쪽으로 바라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지역의 건축적 표정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제 사옥과 공존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병행해서 필요하고 새로운 건물과 장소를 만들고 싶던 차에 탁구를 통하여 알게 된 교회 장로께서 개인의 부지를 교회에 회사하여 시내 중심가에 있던 신도 200명의 오래된 서라벌교회를 이곳에 새로이 신축, 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친척이라는 서울의 건축사 한 분과 대구에서 온 건축사 및 경주의 저까지 포함하여 3인의 아이디어를 받아 20인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사 개인별로 브리핑을 한 후 투표를 했는데 제 안에 조금 많은 표가 나와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분석 후 디자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기능을, 이 대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필연성을 역설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성인수 진입시 1층에서 본당에 이르는 길, 마당과 골목이 등장하는데 계단을 통하여 본당에 이르는 과정에 이야기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손명문 신도들이 멀리서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경우 교수부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1분여 정도 걸어 다가와 건널목을 건너,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며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전면도로가 숙연한 분위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당에 이르는 동안 예배, 교육, 친교, 관리행정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배공간입니다. 중요한 공간까지 이끌고 가는 과정적 연출을 사찰에서의 일주문과 같은 시퀀스를 예로 들 수 있지만 생활을 정리하는 정연한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입구와 지하 우물 천정이 내려다보이고 건물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면서 계단도 진입감의 연출과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소 획일화되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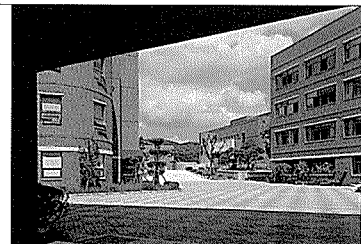
성인수 "하늘로 열린 교회"라는 표제가 주는 느낌은 하늘로 열려 있다는 사실 보다 도시에서 주위에 대하여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배타성과 상징성"을 동시



관악3세대 주택



황성동 성당



문화중·고등학교

에 지니고 있습니다. 배타성이란 기독교의 종교적 속성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주위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주위를 외면하고 독립하고 싶은 내용이 전제된 듯합니다. 또 상징성이란 모더니즘보다 포스트모던 건축을 지향하는 듯 합니다. 단순함보다는 다양한 상징적 언어로 건축을 말하고 있는 데요?

손명문 저층부는 폐쇄성, 그리고 상층부의 개방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주변상황에 대하여 좋은 인자가 있었다면 제가 받아들였을 것이지만 실제로 차량 소음과 전면 도로, 좌우의 산만하고 불량한 경관에 대하여 저층부에서는 폐쇄성을 유도한 것입니다. 주위를 보시면 경주 카도크, 제일컴퓨터세차장, 신흥 막창 등 주위의 그렇고 그런 도시풍경과 자동차 소음이 보여주는 산만한 느낌을 가벽을 설치하여 분리하였고 이 가벽이 건물과 일체를 이루도록 하면서 그 틈새로 예기치 않던 북천과 황성공원의 풍경을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경주의 경우 주변 자연 환경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개방감을 확보하여 자연과 융화가 되어야 하지만 이 가로 환경에서는 반대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환경이 폐쇄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반면에 상층부에서는 북천이나 황성공원, 시가지의 경관을 담기 위해 테라스나 데크, 옥상정원 등을 도입하여 주위 환경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성인수 소장님은 대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편입니다. 만약 장소에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를 반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명문 개인적인 건축적 사고나 철학은 일맥상통 해야 하지만 매번 형태가 같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제주도의 자연적 요건과 문화적 풍토성은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경주만 해도 각 지역마다 다른 분위기를 지녔습니다. 또 대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속성도 다릅니다. 건축행위라는 것은 대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건축이라는 표현 수단을 통해 나타낸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소중한고, 프로젝트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마련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인수 기독교 장로교회는 종교에서도 원칙적, 원론적인 입장을 지닌다고 알고 있는데 저층부의 다소 폐쇄적인 태도는 교회측의 요구사항이었는지 아니면 건축가가 특별히 의도한 공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압하기로는 건축가의 의도가 많아 보입니다.

손명문 미리 계획을 만들어 건축위원회에 설명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구조건을 보고 만든 결과물로 인터뷰를 통하여 선택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수월했습니다. 계획안과 달라진 것은 최상층에 교육공간을 두고 본당을 진입동선을 고려해서 2층에 두려 했는데 교회 위원회 측에서 예배공간 위에는 아무 것도 올릴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본당이 최상층에 위치하게 되었고 노약자 진입의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상층이 예배공간으로 바뀌는 바람에 옥상에 그 공간과 연계성을 가진 야외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저층부의 폐쇄적인 태도는 건축가의 의도된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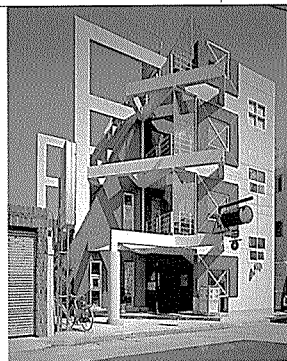
성인수 옥상 야외 예배당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명문 옥상 야외 예배당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간적으로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난간만 있지만 벽을 마련하여 적극화된 공간을 형성했으면 합니다. 제단 상부에 레벨을 두어 객석과 그 아래 무대를 두었고(경우에 따라서는 객석과 무대가 바뀌기도 하겠죠) 양쪽 골목길과 그 옆에 테라스 등 네 종류의 공간으로 나뉘었는데 예상 어려움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바닥재료도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곳에서는 결혼식이라든가 야외 집회 등 친교 공간의 목적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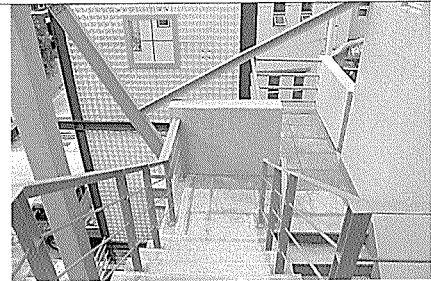
성인수 저층 데크에서는 소장님의 사옥에서도 바라보이는 황성공원이 이 곳에서는 3층에서 열리기



바람1



바람2



바람3

시작합니다. 2층 테라스에 오르면 기벽으로 닫힌 전망이 작은 구멍으로 열려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3층이나 옥상정원에 오르면 측면으로 경주 시내가 보이며 시야가 확대됩니다.

손명문 _____ 이 곳에서의 조망은 3층 높이가 가장 빼어나습니다. 기벽 디자인 자체는 자동차 매연 방지로 붉은 파벽돌을 쓰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드라이비트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종탑에 일부 사용된 목재 패널을 사용하여 드라이비트 벽 위에 부치고 패널에 십자기를 세장하게 묘사되도록 그래픽 요소를 디자인하여 재미하려고 했습니다. 그 용도로 구멍이 남았는데 막으면 단절될 것 같아 공간의 암시성을 지니도록 남겼습니다. 보행로가 없는 도로여서 도로에서 1.5m 가벽을 후퇴하여 보행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시공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비를 심어 녹색의 벽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인수 _____ 경주시가지는 도시계획이나 단지계획 상으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손명문 _____ 그렇습니다. 외곽지 분위기를 시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주주위에는 산이나 녹지가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 시내에는 녹지나 공원이 적습니다. 일전에 도심내 철도 이설 부지에 소공원을 만들어 '그린 축'을 만들자고 시가지 내 녹지지역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일은 경주의 도시경관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 미관심이가 있지만 경주의 도시구조를 분석하여 역사도시, 관광도시, 생활도시로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도시경관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수 _____ 교회설계에 동원된 어휘들, 콘크리트 벽 위에 드라이비트와 그리드, 치장벽돌 벽, 프레임으로 돌출한 격자보, 나무판 그릴 등 하늘로 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건축적 용어로 '수시적 표현'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손명문 _____ 재료의 선택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흔히 통일성, 단순성을 위하여 재료는 3가지 이내로 선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다소 재료가 많은 대신 전체적 형태로 조화를 시도했습니다만 시공과정에서 다소 어긋났습니다. 친밀감을 위한 표현으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였고 콘크리트는 견고성으로 십자가에서 철골 부재는 경쾌함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철에 의한 듯의 분위기는 약화시켰어야 했고 색도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야 했는데 의도보다는 과도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약간은 표현 욕구가 많아 보입니다만 일반적 강가라는 이미지로부터의 장소성, 가로경관에서의 재미 - 시각적 긴장감 - 를 유발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성인수 _____ 옥상 계단아래 단형 축창으로부터 너무 밝아 보이는 본당 강대 뒤로 내리 그어진 흰 태양 빛은 평탄한 벽에서 '신성한 빛살무늬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손명문 _____ 예배시간인 일요일 11시가 교회에서는 피크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빛의 효과를 빛살무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하늘로 승화하는 사선'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빛과 시간의 결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뒷 배경을 단순하게 백색으로 처리하였고 후일 여기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도입하면 새로운 조형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성인수 _____ 그 동안의 프로젝트나 완공 작품을 보면서 건축에서 형태를 만드는 일과 공간을 형성하는 일 중에 형태를 만들고 가다듬는 과정이 우선되는 듯 합니다. 조소적인 형태와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번 경우 두 가지가 동시에 대등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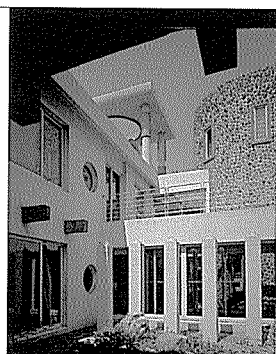
손명문 _____ 건축에서의 형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의 자연스런 표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건축하면 예배공간, 그 중에서도 본당공간이 가장 중



석구빌딩



지운정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 교회에서는 그 대지의 형상에서 어떠한 본당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찾게 됩니다. 그러한 공간이 결정되고나면 형태와의 접목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형태와 공간의 합일점을 찾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변의 물리적 환경 인자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흔히 건축의 형태는 조소적, 골격적, 평면적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교회 건축은 다분히 조소적 형태로 흘러왔습니다만 이 교회에서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 -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움직이는 전실, 다목적실 등 - 은 의도적으로 밤에 주변의 어두운 상황에서 가로의 야간경관을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만 지나가는 행인 등에 대한 무언의 전도지역화를 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비어있는 공간은 신과의 만남을 위한 자기 수양의 마음을 추스리는 내부와 같은 공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인수 _____ 보통 개념은 외연(Denotation; 外延)과 내포(Connotation; 內包)로 나뉩니다. 교회라는 개념의 외연(적 대상)은 무엇이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총칭한 것입니다. 교회의 내포(적 의미)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니는 공통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 중에서 특히 외국이나 국내에서 여행 중 보게 된 교회 중 본인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입니까?

손명문 _____ 그렇습니다. 또 서양건축사 중에는 다양한 교회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연(적 대상)으로써 많은 교회를 좋아하지만 현대교회 건축으로는 헬싱키에 있는 Temppeliaukio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암반 위에 세워진 지하교회로써 자연에 인공의 힘을 빌어 형태와 공간적으로 멋드러진 연출을 시도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파리의 노트담교회를 들렀을 때 우연히 미신 중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성가 신부님의 울려 퍼지는 소리와 빛, 신도들과 어우러진 공간의 종교적 엑스터시를 경험한 것이 생생한 체험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 교회의 내포(적 의미)에 제가 더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수 _____ 평소 학생들에게 강조하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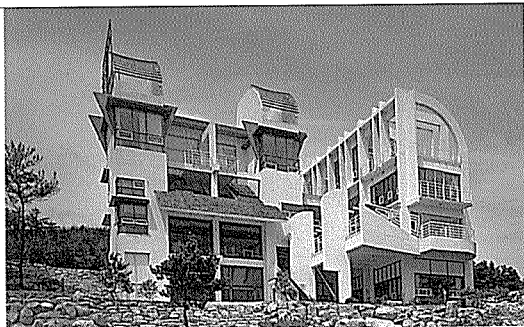
내용은 무엇입니까?

손명문 _____ 건축학과 학생들에게는 주로 대지를 읽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대지와 조건을 어떻게 건축의 형태와 공간에 융화시키느냐? 화가에게는 캔버스가 중요하듯이 건축가에게는 대지가 소중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교양학부 학생들에게는 가벼운 이야기와 슬라이드, 비디오 등으로 건축적 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적 공감대를 형성하다보면 학생들도 쉽게 건축의 깊은 내용을 이해하고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성인수 _____ 서라벌교회 건물에 대한 주위의 평을 들어 보셨습니까?

손명문 _____ 교회측 이야기로는 가끔씩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교회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지형과 장소성에 맞추다 보니 수식어가 좀 많아 졌습니다만 강가를 향해서면 류관원을 원형으로 쓴 종탑이 있는, 다소 침체된 거리환경에서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건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수 _____ 소장님에게 주요 테마는 대지로 주어진 "땅의 의미"이며 항상 그 땅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좋은 건축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포의 집



현곡면사무소